

호흡기 바이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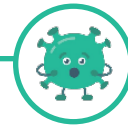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Influenza Virus)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호흡기계를 침범하여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의 증상이 나타나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인 기침, 콧물 등의 증상도 함께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

가을부터 초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률이 높으며,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매우 높습니다. RS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8일이며 재채기, 콧물, 인후통,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미숙아나 만성 폐질환, 선천성 심장 질환을 보유한 고위험군 아기가 감염되면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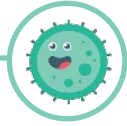
엔테로 바이러스(Enterovirus)

주로 여름과 가을에 발생률이 높으며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은 무증상이거나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열, 콧물, 기침, 피부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드물지만 심한 경우에 뇌수막염, 뇌염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엔테로바이러스 71은 수족구병의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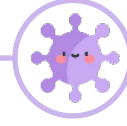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소아 후두염의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로, 성인에게는 면역 저하를 일으키며, 심한 폐렴까지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연령에 따라 임상 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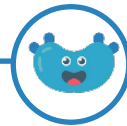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

사람에게서 흔하게 검출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229E, OC43, NL63입니다. 대부분 충분한 면역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감기 등의 경미한 질환을 일으키고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되지만 면역저하환자의 경우에는 중증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ars-CoV, MERS-CoV, COVID-19과는 유전정보 및 구성 단백질이 다르게 구성된 서로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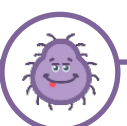
아데노 바이러스(Adenovirus)

주로 호흡기, 눈 위장관 등의 감염증을 유발하며 감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호흡기 분비물이나 눈의 분비물을 통하여 전염되며 경증 호흡기 질환부터 폐렴과 같은 중증 호흡기 질환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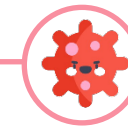
리노 바이러스(Rhinovirus)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서 감기의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이며, 100가지 이상의 혈청형이 존재하여 예방접종의 실효성은 낮습니다. 인후통, 콧물, 재채기, 기침, 비염, 인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메타뉴모바이러스(Metapneumovirus)

주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감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키며 천식성 기관지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카바이러스(Bocavirus)

2005년에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로 소아의 하기도 감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 영유아가 감염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